

큰스님 수행한담

“언제나 이생 떠날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생사품(生死品) ②

身四大爲色 신사대위색
識四陰曰名 식사음알명
其情十八種 기정십팔종
所緣起十二 소연기십이

이 몸통이는 사대로 형체 꾸미고
의식의 네가지 쌓임을 이름 삼으며
그 정은 열여덟가지
연기는 열두가지 이네

神止凡九處 신지범구처
生死不斷滅 생사불단멸
世間愚不聞 세간우불문
蔽障無天眼 폐암무천안

영혼이 머무는 곳 무릇 아홉 곳
돌고돌아 생사 끊이지 않건만
세상의 어리석은 이 들지 않아서
덮이고 어두우니 하늘 눈 없네

自塗以三垢 자도이삼구
無目意意見 무목의망견
講死如生時 위사여생시
或講死斷滅 혹위사단멸

탐진치 세가지 때 스스로 겹 바르고

如火隨形字 여화수형자
善獨爲獨火 착촉위촉화
隨隨草蕘薪 수탄초분신

정신이 몸을 빌어 이름 불여지는 것
마치 저 불이 물짐의 생김새 따라
초에 붙이면 촉불이 되며
숫·풀·미른똥·섞에 따르면 그 불
이 되네

心法起則起 심법기즉기
法滅而則滅 법멸이즉멸
興衰如雨雹 흥쇠여우박
轉轉不自識 전전불자식

마음에서 한 법 일어나면 마음도 일
아나고

법이 멸하면 마음도 멸하는 것
흥하고 쇠함이 마치 비와 우박같아
돌고 돌지만 스스로는 알지 못하네

識神走五道 식신주오도
無一處不更 무일처불경
捨身復受身 사신부수신
如輪轉著地 여륜전착지

식신이 다섯길로 내달아서
한곳도 바뀌지 않음이 없네

“남 모르게 행하고 말없이 이르는 곳
가는 곳마다 메아리가 응하듯 한다”

눈이 없어 견해가 망녕 되니
이른바 죽음이 생사와 같다 하고
혹은 죽으면 끊어진다고 한다

識神造三界 식신조삼계
善不善五處 선불선오처
陰行而顯到 음행이묵도
所住如響應 소왕여향응

의식·정신 작용이 삼계 만들고
좋고 나쁜 다섯곳 만들어 낸다
남모르게 행하고 말없이 이르는 곳
가는 곳마다 메아리가 응하듯 한다

欲色不色有 욕색불색유
一切因宿行 일체인숙행
如種隨本像 여종수본상
自然報如意 자연보의의

욕계 색계 무색계 있어
그 모든것 숙행에 인연한다
마치 씨앗이 본래 형상 따르듯이
자연스런 그 값을 뜻한 바대로 이네

神以身爲名 신이신위명

몸 버렸다 다시 몸 받는 것
마치 바위가 구르면서 땅에 붙는것
같네

如人一身肉 여인일신거
去其故室中 거기고실중
神以形爲體 신이형위려
形壞神不亡 형괴신불망

마치 사람이 한 몸으로 살면서
살던 낡은 집 버리고 떠나듯이
정신은 형상으로 집을 삼다가
형상이 무너지면 정신은 죽지않네

精神居形體 정신거형구
猶雀藏器中 유작장기중
器破雀飛去 기파雀비거
身壞神不生 신괴신서생

정신이 몸통에서 거처하는 게
마치 새가 그릇 안에 갇혔다가
그릇 깨지면 날아가듯이
몸이 무너지면 정신은 딴 곳으로 간
다

龍眼

지혜스님 (밀양 대법사 조실)

입산 득도한지 61년 세월을 선(禪)수행
만 했습니다. 오직 은사(隱) 동산스님에게
서 “너는 참선수행만 하거라”하신 그 말
씀 한마디에 의지한 채 말합니다. 어려서
동진출가해 은사스님은 내게 부모이자
스승이셨던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 깊이 은사스님의 은덕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훌륭한 은사스님
덕에 제방의 크고 작은 선방에서만 살아
왔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큰 절 주지 한
번 하지 않았으니요.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곰곰히 새겨보면
일대사 인연을 다 깨달으려는 것이고, 내
안의 불성(佛性)을 잘 드러내는 지름길
로 이끌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불교와 인연이어진 불자라면 몸을 받
은 금상에 반드시 닦아야 할 것이 있습
니다.

그 길에는 두가지 문(門)이 놓여 있어
요. 이 두 문을 모두 통과를 해야 합니
다. 손바닥의 앞 뒷면과 같아서 함께 지
녀야 합니다. 그 하나는 교문(敎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문(禪門)입니다.
교문은 보살48계 구족계를 받으면 끝
납니다.

그러나 선문은 선방에서 7~8년 있어
야 비로소 기초를 알게됩니다. 그러나 깨
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몸이 다하는 날까
지 정진해야 하는 것이 선문입니다.

나는 선문에 들어서서는 특히 복(福)이
터졌다고 생각해요. 당시 한국불교 선택
의 큰 봉우리이신 범어사 동산스님을 은
사로 모시고 공부했고, 해방직전 금강산
유점사 마하연에서 만공스님으로부터 보
살계 48계를 전수받았으니요. 그후 전
국 선방에서 20년간을 했으니, 꼬박 10년
을 매달린 셈입니다. 그후 용성 표봉 청
담 함양스님 등 당대의 큰스님들과 두루
교류하며 지냈지요.

한때 단양 원통암 나운화상 토굴에서
오도정진할 때였습니다. 새벽녘 동쪽기
슌에서 부는 바람소리를 듣고 나갔어요.
처다보는 바람결이 불 보살님의 깨달음
을 알리는 소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
다. 뒷날 그것이 오도정진인 것을 알았지
요.

그후 오대산 월정사에서 주석하다가
남쪽 바람을 따라 현재 이곳인 밀양 영
축산 옛 표충사(表忠祠)로 들어오게 됐
어요. 조선조 임진왜란때 선조임금께서
승명을 일으켜 나라를 지킨 사명대사를
기리는 뜻으로 하사하신 곳이거든. 그래
서 원래 사명대사의 영정을 모신 곳이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문무왕때 의상
대사가 영주 부석사를 창건하고 화이 남

쪽으로 날아와 앉은 곳에 지은 절이 백
학암(白鶴庵)인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가 이곳을 수행처로 삼고 있는 것은
사명대사의 혼을 잇고 불자들이 본분을
깨달도록 하는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인
력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산중에 대
웅전과 보광선원 요사채를 중수하는, 크
다면 큰 불사를 일으켰던 거지요. 이제
완성의 단계에 이르고보니 호국불교의

- 1924년 진주 소
37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
님 은사로 입산
38년 동산스님 계사로 시미계
수지. 범어사 강원 대교과 수
료.
40~43년 금정선원 3년 정진
44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 계
사로 비구계수지
44~45년 해인사 선방서 정진
45년 3~8월 금강산 유점사 마
하연 등서 만공스님계사로 구
족계·보살48계 전수
45~54년 범어사에서 해방맞은
이후 전국 선방서 수행
55~62년 충북 단양 조계산 원
통암 나운화상 토굴에서 오도
정진
62~69년 월정사 등 전국 선방
주석
現 밀양 대법사(옛 표충사) 에
주석



문제가 생기면 ‘네 탓’으로 돌리니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어려워져요
크던 작던 공업이니 각자 참회해야죠

상징이신 사명대사의 큰 원력이 절실하
게 외닿는군요.

불자들은 내 한몸에 얽힌 인연의 소중
함을 알아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근본으
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4가지를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기
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는 우선 생
명의 인연을 지어준 조상을 위해야 합니
다. 둘째는 국민이 됐으니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셋째는 부처님 가르침
으로 참 지혜를 알게 됐으니 불교를 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
째는 사회를 위한 화합의 인생을 살아

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된 도리를 제대로 하는 길
입니다. 이 네가지를 일깨우고 실천하게
끔 마음의 인연을 지어주는 도량이 이곳
대법사입니다. 평생에 걸친 삶에는 관여한
바 없이 수행만 해온 사람이 무슨 힘으
로 이 큰 불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
처님 일니가 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
도량에서는 여러분들이 불자의 도리를
익히고 새겨서 다시 마음으로 가셔도 지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인연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무척 어렵습니다. 외
국에서 돈을 꾸어다가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지만,
결국 총칼만 안들었지 경제전쟁이 터
진 셈인게지요. 이 난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임진왜란 당시 보였던
선대 우리 스님들처럼 위기극복의 지혜
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네 탓 네 탓 가리고
따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크건 작건
우리 모두가 초래한 공업이기 때문에 각
자 탓이라 여기고 철저히 참회해야 합
니다. 그리고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또한 각자 위치에서 오매불망 회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각자 몸통이 자리가 다
르지만 마음자리가 하나로 되면 그 순간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국난은 극복해
야 할 당면과제 이자,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터 극복이후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교
훈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잘 살수 있습니다. 분
명한 이유는 공부하는 스님들이 많아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한다 이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스님 한분은 다른 종

장가안가길 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삼천백 삼천부 거닐(신간) 삼천백을 쉽게 하는 책
▶ 마음을 맑게 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새책 온 불교 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 5행지침서 모든 불교 교리를 알기 쉽게 총 망라!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하)
▶ 불교 EQ 100
▶ 불교 만화 시미프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조반심자경문, 중도가 외 다수

순수한 평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①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지 글자(眞本) 龍王그림 (수액·치단) 특별보사!
② 묵판·동판·인쇄 특이본 노다 생필인 진본이 영기와 영험이 더 있습니다.
한국 수액판 방지 善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적,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02)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硏究會

건강에의 신비!
玉 玉 玉 玉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 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 몸과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환자를 기른 결과 솜씨 위와 정자의 40%증 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의 나머지는 37%~84.8%의 치료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의 정진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 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아라 승배가 걸립니다.
玉 玉 家 (02)777-0105 (백옥옥)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탕좌
깨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 ~ 8
F A X : (053)639-0407